



도심지 하늘마저 가리는 거미줄 전선

제주시내 미관 저해·사고 우려되는 곳 비밀비제
119 “전선줄 끊김 신고 빈번… 소방활동에 장애”

뒤엉켜거나 높이가 낮게 늘어선 전선들이 미관 저해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전선들은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시 운영되는 고가사다리차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해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제주시내에서 고압전선 및 공간협소, 상승 주·정차 등을 이유로 소방 활동 장애 대상으로 지정된 공간은 총 71개소다. 이중 고압전선이 장애 사유가 된 경우는 모두 36개소였다. 특히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한 소방 활동 시 장애 대상으로 지정된 사례는 모두 85건이었는데, 그중 고압전선이 장애 사유가 된 경우 역시 39건에 달했다. 현재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주로 이용되는 고가사다리차의 표준 규격은 전장(길이) 13m 이하, 전고(높이) 4m 이하다. 이에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한 인명구조 시 전선의 최소 높이가 4.5m 이상은 돼야 원활한 구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시내 일부 구간에 이러한 높이를 확보하지 못한 곳들이

산재하면서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인근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다.

취재결과 제주시 연동 주택가에는 한눈에 보기에 높이가 4m에 미치지 못하는 전선들이 빼곡히 설치돼

있었다. 전봇대와 주변 가게 사이로 전선과 통신선을 포함한 각종 공중 선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어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화재 위험에도 취약해 보였다.

일도2동 소재 주택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곳에는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을 뿐 아니라 2m도 채 안돼 보이는 전선이 아래로 위태롭게 늘어져 있었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전선줄이 낮게 늘어지거나 끊겨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사례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사다리차의 경우 일반 차량보다 높이가 있는데, 현장 출동 시 전선 문제로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사다리차 설치가 불가해 직접 수관을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 화재 진압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시 연동 주택가 건물 사이로 빼곡히 늘어선 전선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

강희만기자

“양식장 배출수 연안환경오염 차단”

제주시, 수조식 양식시설
5~6월 수질 등 점검키로

제주시는 양식장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고, 연안 환경 보호를 위해 5~6월 두 달간 수조식 양식어업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조면적 합계가 500

㎡ 이상인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92개소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지도과와 해양수산과가 합동 점검을 벌인다.

중점 점검사항은 침전·여과 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침전물 적정처리 여부다. 배출수 시료를 채수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제주경실련 “고소득층
재난지원금 기부 동참을”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층이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고 기부처

리 하거나 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사회 지도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더욱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제주경실련은 “정부는 소득계층

위반사항 적발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업장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 공개해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창호 환경지도과장은 “육상 양식장의 주요오염원은 사료찌꺼기, 배설물 등으로 제주의 청정 연안환경 보호를 위해 양식장 관리자 스스로 적정 처리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지난 1일부터 한림항과 비양도 바닷길에 투입되고 있는 행정선.

사진-제주시 제공

도항선 갈등 비양도에 행정선 투입

제주시 1일 정원 52명 배 띄워… 하루 4회 운항
섬 구경하러던 관광객들 배 못타는 불편 겪기도

속보=제주시 한림항~비양도 항로를 운항하는 2개 도항선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며 지난 1일부터 행정선이 투입됐다. 하지만 24t급 행정선의 승선정원이 52명(승객 49명, 승무원 3명)으로, 일부 관광객들이 오전시간에는 배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2개 도항선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난 1일부터 섬 주민들의 필수 연륙교통수단 마련을 위해 행정선 ‘비양호’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 항로에 행정선이 뜨는 것은 제주시가 도선사업을 민간에 넘긴지 3년만이다.

행정선은 하루 4차례(한림항에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2시와 4시 출발) 양복 운항한다. 하지만 행정선 투입 전 이 항로를 운항하던 제1도항선사인 (주)비양도천년랜드(29t, 정원 100명)와 제2도항선사인 (주)비양도해운(48t, 정원 120명)과 비교하면 정원이 1/4 수준이어서 황금연휴를 맞아 관광객이 몰리면서 오전시간에는 정원이 일찌감치 마감

되는 상황이다. 운항 첫날인 1일 승객은 162명(주민 13명, 관광객 149명)으로, 오전시간에는 정원 초과로 관광객 100명이 승선하지 못했다. 2일에는 주민 10명과 관광객 131명 등 141명이 행정선을 이용했다.

이번 행정선 투입은 공유수면 사용을 둘러싸고 법적다툼을 벌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두 도항선의 공유수면과 항만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 두 도항선사는 도항선 운항을 위한 공유수면과 항만시설 사용허가기간이 3월 말로 만료되자 4월 30일까지 사용허가기간 연장을 공동 요청하면서 상생방안을 마련해 제주시에 제출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미제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행정선 투입을 위해 선장, 기관장, 매표소 직원 등 3명을 채용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선 운항은 지역 주민의 필수연륙교통수단 마련을 위한 조치”라며 “두 선사가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면 행정선 운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코로나19 빌미 노동자 불법해고 엄단하라”

민주노총제주본부 기자회견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제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를 틈탄 불법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를 주축으로 구성된 ‘2020 세계노동절 제주공동행동’ 참가자 100여명은 세계노동절 130주년이자 근로자의 날을 맞은 지난 1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라는 위

기 국면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해고와 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엄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공동행동은 “코로나19로 관광 서비스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자 무급휴직, 강제 임금삭감, 불법적 정리해고, 권고사직이 난무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 해고 금지 의무화가 선제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만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 가시식, 청진가시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탱자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골(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번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골묘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번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